

제16권 6호

2026. 3. 20 ~ 2026. 4. 12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
- 이슈분석** 자산관리의 완성, 중여·상속
- 금융경영브리프** 마스터카드, Virtual C-suite 솔루션 출시
일본 3대 메가뱅크, AI 통한 채용 프로세스 혁신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로 급등
외 환 : 이란 전쟁으로 급등 및 변동성 확대
부 동 산 : 양도세 유예 종료 및 세제 변화에 관망세 확산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이시은(sieunyi)

논단

연구위원	이종수(jongsoo.lee)
------	------------------

이슈분석

연구위원	황선경(skhwang)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이예린(yerin.lee)
수석연구원	조고은(goeunzo)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외 환 연구원	이동현(dhlee11)
부동산 수석연구원	이재원(jaewon.lee)

금융지표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	----------------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
- 04 **이슈분석** 자산관리의 완성, 중여 · 상속
- 08 **금융경영브리프** 마스터카드, Virtual C-suite 솔루션 출시
일본 3대 메가뱅크, AI 통한 채용 프로세스 혁신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로 급등
외 환 : 이란 전쟁으로 급등 및 변동성 확대
부 동 산 : 양도세 유예 종료 및 세제 변화에 관망세 확산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

이 중 수 연구위원

경제학자 케인즈와 슈페터는 경제성장의 이론 기반은 달랐지만 산업 혁신을 위한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유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SI 개발 기반 조성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 자본을 집중시키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산업이 생산적 금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SI로 생산성을 높이는 제조업에도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의 효과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경제학 대가들은 기술 혁신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강조

경제학자 케인즈는 1930년 발표한 화폐론에서 자금의 흐름을 산업적 순환(industrial circulation)과 금융적 순환(financial circulation)으로 구분하였다. 산업적 순환은 실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생산과 고용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금융적 순환은 자금이 금융시장 내부를 돌며 증권 등 금융자산의 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케인즈는 금융적 순환이 과도해질 경우 금융자산 가격의 버블이 발생하고 산업 생산에 필요한 자금 공급이 축소되어 실물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산업적 순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케인즈와 슈페터는 상반된 경제 논리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

슈페터는 케인즈와 상반된 관점에서 경제 논리를 주장한 경제학자이다. 케인즈가 수요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통해 유효 수요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슈페터는 기업가가 혁신적인 상품을 공급하면 사람들이 이를 신기해하고 구매한다는 논리로 공급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반된 경제 논거에도 불구하고 슈페터는 실물 경제에서의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케인즈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슈페터는 기술 혁신이 주의를 이끄는 힘이며 혁신은 기업가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반드시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와 슈페터와 같은 경제학 대가들이 강조하는 산업적 순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기업가의 기술 혁신을 위한 금융의 뒷받침은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의미로 이해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국민성장펀드 1차 7대
메가프로젝트는
저비용 AI 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혁신에 긍정적

::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는 긍정적

정부는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첫 번째 투자 후보군으로 7대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7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K-엔비디아 육성,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AI(국가 AI 컴퓨팅센터), 에너지 및 산업 기반 시설(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미래차 및 이차전지(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차 7대 메가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국가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자산 형성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AI 고속도로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여 인프라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AI 관련 기업들이 GPU 등 고가의 인프라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공용 자원을 사용하여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AI 인프라 조성에는 특정 해외 기업 의존도가 높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혁신 기술들은 투자 기간이 길고 기술 개발 불확실성이 크므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인다. 1차 메가프로젝트 중 몇 개 사업이 그동안 사업 불확실성으로 자금 확보 등에서 어려움 있었다고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국민성장펀드의 방향성은 혁신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적인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고성능 AI 반도체 수급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기조는 시의적절하다. 특히 산업체·학계·연구소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번 정책은 국내 AI 생태계 정반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적 금융이 일반산업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제기

최근 금융기관들은 미래 첨단전략산업 혁신과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이다. 특히 5대 금융그룹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은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반도체, AI,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전략 지역에 대해 전체 약 500조 원 이상의 투자 및 자금 공급을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들은 생산적 금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직을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자금이 첨단전략산업 위주로 집중됨에 따라 일반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많은 경제학 연구들은 은행들이 정책적 인센티브나 인식된 성장성에 기인하여 선도(frontier) 부문에 집중할 때 이는 전통적 부문에 대한 수량적 구축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혁신 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 할당이 이자율 뿐만 아니라 혁신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일반산업의 투자(자금공급)를 구축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산업에 속하는 기업, 특히 일반 제조업체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 AI 기반 일반산업 생산성 향상에 생산적 금융의 역할 필요

생산적 금융의 효과가 첨단전략산업을 넘어 일반산업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적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거래하는 제조업체가 AI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할 경우 이들에 대해 대출 약정·재약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소 제조업체 특히 지방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생산적 금융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제조업에 AI를 적용하는 아이디어는 AI 벤처들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증권사나 벤처펀드들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AI 벤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reenwald and Stiglitz(2013)¹¹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에는 학습이 중요하며 학습 외부성(learning externalities)이 큰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이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의 학습능력과 파급효과를 강조하였다. AI 인프라 구축과 AI 기반 일반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학습 외부성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 혁신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실질적 경제 성장을 이끈 일반 제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의 학습효과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도록 생산적 금융의 확장이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이
첨단전략산업 위주로
집중되면서 기존
전통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금융기관은 일반
제조업체가 AI로
생산성을 높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일반 제조업 혁신에도
기여하도록 할 필요

[1] Greenwald, B., Stiglitz, J.E. (2013) "Industrial Policies, the Creation of a Learning Socie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Industrial Policy Revolution I.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Series

자산관리의 완성, 증여·상속^[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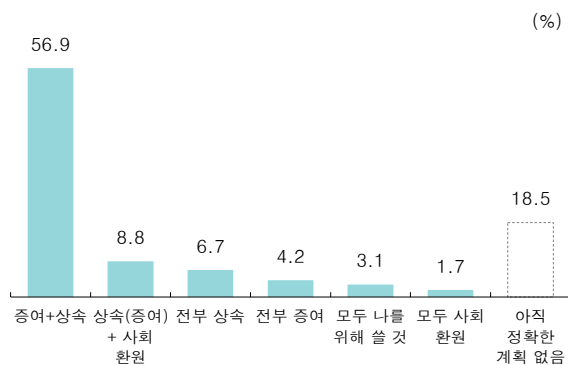
황 선 경 연구위원

국내 부유층은 자산 이전을 후대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며, 증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이전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 이전 시기나 대상 분산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일부 자산은 개인 소비 및 사회 환원에도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세부담, 제도 변동성, 절차 복잡성 등으로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맞춤형 자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맞춤형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자산 이전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부유층의 절반은 자산이전 계획을 실행 중이며 사전 증여를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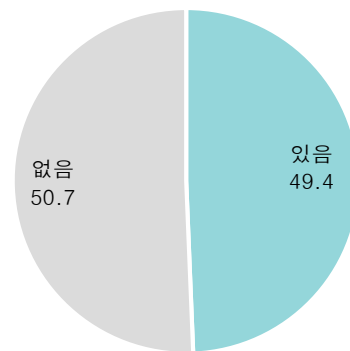
- 부유층의 80%가 자산이전을 계획하는데, 상속과 증여를 병행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사회 환원 및 생전 자산의 전(全) 소진 의향은 아직 낮은 수준
 - 자산의 일부는 살면서 증여하고 일부는 사망 후에 상속할 것(57%), 전부 상속할 것(7%), 전부 증여할 것(4%)
 - 부유층 10명 중 1명 꼴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향이 있으며 자산 이전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전부 소진하겠다는 응답은 3%로 낮음
- 부유층의 약 50%가 이미 증여를 실행했으며, 40대 이하의 젊은 층도 1/3 이상이 증여 경험을 보유
 - 증여 결정은 증여자의 건강상 사유보다 수증자의 자금 필요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세제 등 정책 환경에 따른 유불리 역시 주요 고려 요인
 - (연령별 증여 경험) 70대 이상(67%)>60대(56%)>50대(41%)>40대 이하(36%)

■ 부유층의 자산이전 계획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2026)

■ 부유층의 증여 경험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2026)

[1] 본고의 내용은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기반하며, 해당 보고서는 '26년 4월 중순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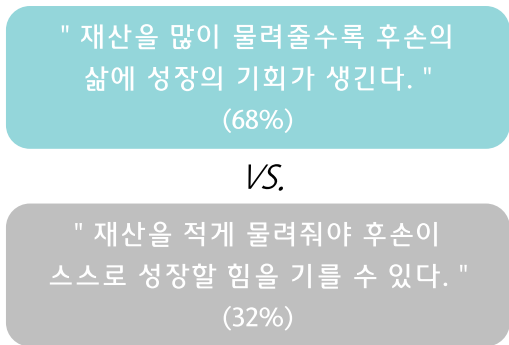
■ ‘자산이전이 후대의 성장에 기회가 된다’고 인식하고 기반 형성 시점에 지원성 증여

- 세대를 불문하고 부유층의 약 70%가 재산을 많이 물려줄수록 후손의 삶에 성장의 기회가 확대된다는데 동의
 - 현재의 부를 일구어 낸 과정에서 상속자산이 주요했던 부유층의 경우 더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동의하는 부유층은 증여 실행률도 높음
 - 필요 이상의 많은 자산을 지원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다음 세대의 독립 기반 마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선에서 지원할 계획
- 주로 수증인이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할 때나 결혼 등 주요 생애 주기의 변곡점에서 자산 이전을 고려
 - 자산이전을 고려하는 시점 1,2순위는 ‘물려줄 대상이 주택 구입, 사업 등 목돈이 필요할 때(41%)’, ‘결혼할 때(33%)’
 - 특정 시점 외 물려줄 대상이 어릴 때부터 수시로 하겠다는 의향(31%)이 높은 편인데,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52%)에서 동 인식이 폭넓게 확산

■ 이전 시기 및 대상 분산, 자산 유형 다양화 등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산 이전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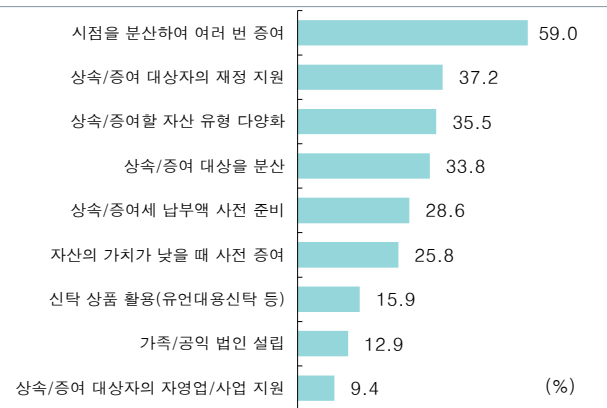
-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분산 증여를 함으로써 공제를 활용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며 세대 간 불화, 분쟁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자산 이전을 도모
 - 시기 분산 증여(59%) > 수증인의 교육비 등 일상적 재정지원(37%) > 이전할 자산 유형 다각화(36%)
- 젊은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신탁 상품을 활용한 자산이전 의향도 높은 편
 - 부유층의 16%가 신탁 상품 활용을 고려해 아직까지 보편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나 40대 이하는 전체 평균 대비 1.3배 높은 의향을 보임

■ ‘자산 이전은 다음세대의 성장 기회’ 동의율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2026)

■ 효율적 증여(상속) 방법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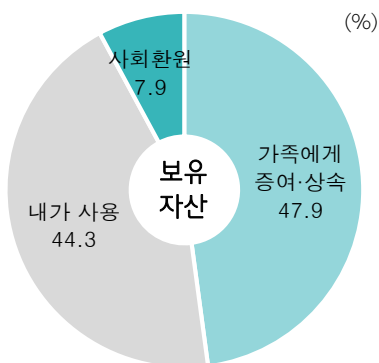
■ 보유 자산의 절반은 가족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나와 사회를 위해 사용할 계획

- 자산이전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가 관찰되나 기성세대는 아직까지는 보유자산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가족 이전에 더 많이 배분
 - 보유자산의 48%는 ‘가족에게 증여·상속’, 44%는 ‘나를 위해’, 8%는 ‘사회 환원’
 - 50대 이하의 젊은 부유층은 부모가 생전에 충분히 자산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본인도 향후 이전보다 나를 위해 쓸 비중(49%)을 더 높게 고려
- 자산이전에 대한 인식과 성별에 따라 ‘나를 위한’ vs ‘가족에게’ 비중에 차이
 - 자산이전이 후손의 삶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족 이전에 자산을 더 많이 할애하며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이 남성대비 나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가 강함

■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현금 이전을 가장 선호, 젊은층은 주식이나 예술품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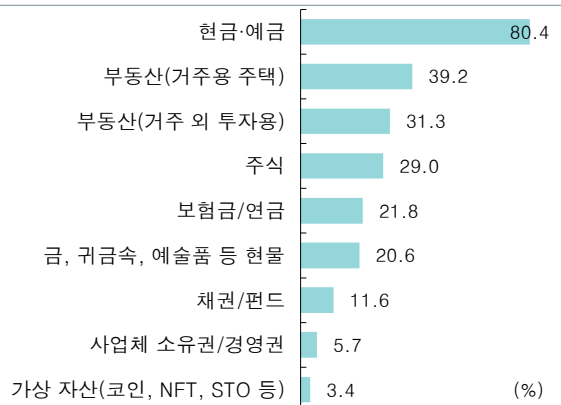
- 부동산보다 현금·예금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며, 피상속인(수증인)도 관리 및 재산 분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
 - 현금·예금으로 이전했거나 하겠다는 응답이 80%에 달하며 다음으로 주택, 투자용 부동산으로 이전할 의향
- 50대 이하의 부유층은 주식 또는 금이나 예술품 등 현물 이전 의향이 이전 세대 대비 높고, 가상자산 보유자는 동 자산으로 이전할 의향이 상당
 - 50대 이하는 투자용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며 1/4은 금, 예술품 등 현물 자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
 - 가상자산 보유자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의향이 18%로 높은 특징

■ 보유 자산의 활용 계획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2026)

■ 선호하는 자산 이전 방식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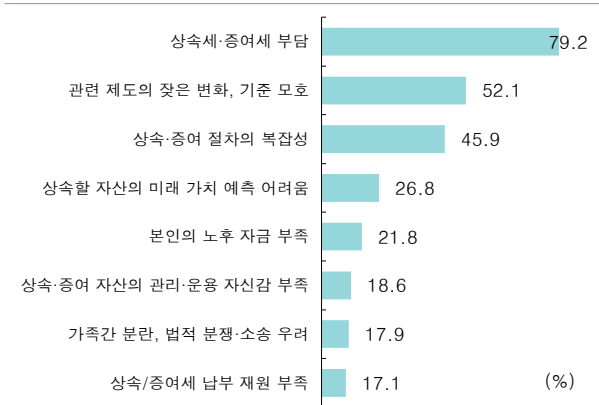
■ 자산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금 부담, 제도 변동성, 절차 복잡성에 따른 애로 상존

- 증여·상속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세금 부담이며 향후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까지 상속 계획에 포함
 - 부유층의 약 80%가 자산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1/3은 세금 납부액을 사전에 준비
- 과반 이상이 증여·상속 관련 정책이나 법률의 잦은 변화와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행 절차의 복잡성도 애로사항으로 꼽음
 - 제도 변동성(52%)이나 절차의 복잡성(46%)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며 가족 간 분쟁 우려(18%)는 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은 편

■ 금융회사는 맞춤형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자산 이전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로의 역할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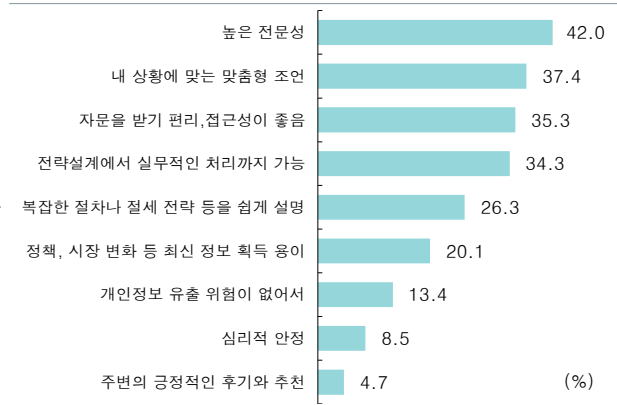
- 상속 계획 수립 시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외 관련 전문가 활용이 병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맞춤형 자문과 신뢰 측면에서 경쟁 우위 보유
 - 금융회사 활용 75%, 세무사/회계사 등 금융사 외 전문가 활용 78%
 - 맞춤형 자문 제공, 접근 용이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및 선호가 상대적으로 우위
- 금융회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서비스 고도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적 자산 이전 파트너로의 역할 확대 필요
 - 은행을 중심으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조직·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ex.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KB국민은행 ‘KB 골든라이프 자문센터’)
 - 금융회사는 고객 자산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차별적 강점을 기반으로 End-to-End 자산 이전 지원 체계 구축 가능 

■ 자산 이전 계획 수립 시 애로사항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2026)

■ 자문 채널 선택 기준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2026)

마스터카드, Virtual C-suite 솔루션 출시

이 예 린 연구원

'26년 3월 마스터카드는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AI 에이전트 솔루션 'Virtual C-suite'를 출시하였다. 해당 솔루션은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재무, 보안, 마케팅 등 기업 핵심 분야에서 기업 성과를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등 경영진 역할을 수행한다. 자율 금융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사들은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이에 국내 금융사도 중소기업 대상의 B2B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 마스터카드는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AI 솔루션 'Virtual C-suite'를 출시

- '26년 3월 마스터카드는 자사가 보유한 거래 데이터와 에이전틱 AI 기술을 결합해 중소기업에 위한 가상 경영진 서비스인 'Virtual C-Suite'를 출시
 - '25년 기준 마스터카드 네트워크에서 처리된 1,750억 건의 글로벌 거래 데이터를 기업 재무 데이터와 결합하여 고도의 정밀성을 확보
- 해당 솔루션은 전 세계 기업의 90%를 차지하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원 격차를 해소하고, 카드 네트워크사의 카드 결제 수수료 외 신규 수익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시^[1]
 - 딜로이트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23%가 AI 에이전트 기술을 최소 보통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2년 내 전체 기업의 74%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전망이다^[2]

■ 동 솔루션은 단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 재무·보안·마케팅 등 전문 경영진 역할을 수행

- 'Virtual C-Suite'는 재무, 보안,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기업 성과 분석, 리스크 및 기회 식별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
 - 기업 회계 시스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및 बैं킹 앱에 직접 통합되며 사용자 친화적인 대시보드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
- 디지털 CFO는 기업의 현금 흐름 실시간 모니터링, 재무 추세의 구체적 원인 분석과 자율적 실행 제안 등 대기업 수준의 재무 분석 인프라를 제공
 - 보안 리스크를 탐지하는 CISO,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는 CMO 등 통합 경영 에이전트 체계를 통해 기업 운영 전반을 자동화

[1] "Visa, Mastercard accelerate AI tools for businesses", American Banker, 2026.03

[2] "State of AI in the Enterprise: The untapped edge", Deloitte, 202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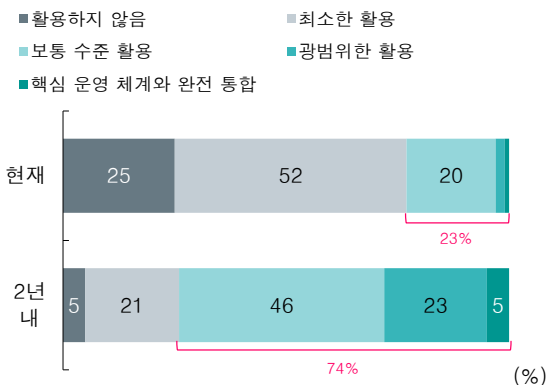
■ 자율 금융 시대로 진입하며 글로벌 금융사의 기업 대상의 AI 에이전트 개발이 본격화

- '26년 금융 시장은 단순 AI 보조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자율 금융(Autonomous Finance) 시대로 진입³⁾하며 금융사들은 기업 운영 효율 극대화 및 락인을 위해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개발
- VISA는 AI 플랫폼 기업 ServiceNow와 협업해 결제 분쟁의 처리 과정 지원, 사건 우선순위 지정 및 문서화 작업 자동화를 위한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
 - AI 에이전트가 현재 및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쟁 해결 지침을 생성해 제공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금융사의 분쟁 검토 및 해결 속도를 향상
- JP모건은 e커머스 소프트웨어 기업 Mirakl과 협업해 대형 가맹점에게 간소화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26.3)
 - 솔루션에는 제품 카탈로그 최적화를 비롯한 구매 여정 전반에 대한 지원과 안전한 결제 처리 및 토큰화, 사기 방지 기능 등이 포함

■ 금융사는 중소기업 대상의 B2B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

- 기업의 AI 에이전트 활용이 본격화되며 AI 에이전트가 최적의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까지 진행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로 부상할 전망
- 금융사는 결제수수료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결제 및 계좌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함
- 독자적인 AI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우수한 B2B 소프트웨어 및 핀테크와 적극적인 API 연동 등의 제휴 전략을 추진할 필요⁴⁾

■ 기업의 AI 에이전트 활용 범위



자료 : Deloitte

■ 글로벌 금융사의 기업용 AI 에이전트 관련 동향

금융사	주요 서비스
MasterCard	- 중소기업의 자원 격차 해소,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분석, 보안 감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 가상 경영진 서비스 제공
Visa	- ServiceNow와 협업해 사건 우선순위 분류 및 문서화 작업, 해결 지침 생성 등 결제 분쟁 처리 과정을 지원
J.P. Morgan	- Mirakl과 협업해 AI 최적화 카탈로그 관리, 안전한 자율 결제 인프라 등 기업의 에이전틱 커머스 환경 진입을 지원
BoA	- 기업 고객용 CashPro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현금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해 기업의 의사 결정을 돕는 인사이트를 제공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3) "Emerging trends for 2026, and other finance news to know", World Economic Forum, 2026.03

일본 3대 메가뱅크, AI 통한 채용 프로세스 혁신

조 고 은 수석연구원

일본 3대 메가뱅크(MUFG·SMBC·미즈호)가 2027년 신입 채용부터 AI 면접을 본격 도입하며 일본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했다. 다만 AI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최종 합격 결정권은 반드시 면접관이 전담한다. 국내 금융사도 채용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되 이를 다루고 판단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하며, AI 채용 확산에 앞서 금융당국 차원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MUFG는 2027년 신입 채용부터 지원자가 선택하는 AI 면접을 전격 도입¹⁾

- 지원자는 1차 면접에서 AI 면접과 대인 면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AI는 답변 내용, 논리 구조, 표현 방식, 발화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
- 최근 신입 초임 인상으로 은행권 취업 인기가 높아지며, 지원자가 급등한 것이 AI 전형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
 - 지난 4월 입행 초임을 30만엔으로 인상 발표한 후, 2025년 인턴십 응모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 향후 응모자 급증에 대비한 실효성 높은 도구가 필요해짐

■ SMBC·Mizuho 및 종합상사들도 AI 면접을 도입하며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

- SMBC는 집단토론 녹화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논리적 사고력 등을 AI로 점수화하며, 면접관이 반드시 확인 후 전형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함
 - 지원자 권리보호와 AI 평가에 대한 공정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AI 점수화를 희망하지 않는 지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음
- Mizuho는 AI 스타트업 ROXX의 ‘AI 면접관’ 서비스를 캐리어 채용에 도입하여, 면접자는 야간·휴일을 포함해 24시간 365일 스마트폰으로 면접 가능
 - 야간이나 휴일에도 면접이 가능해 지원자의 시공간 제약이 해소되었으며, 이는 전형의 효율성 측면에서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 이점을 제공
- 또한 종합3사인 미쓰비시상사, 스미토모상사, 마루베니도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 시스템을 도입해 내재화하는 추세

[1] “三菱UFJ銀行が新卒採用面接にAI 三井住友は集團討論、選考の質向上”, 日本経済新聞, 202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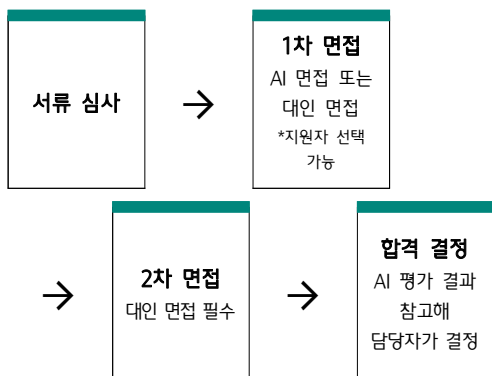
■ AI 면접으로 채용 시스템을 효율화하되 최종 결정권은 면접관이 전담

- AI를 채용 프로세스의 보조 도구로만 활용해, AI가 합격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면접관이 최종 판단하도록 시스템화
 - MUFG와 SMBC의 경우 AI 면접 결과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며, 면접관이 진행
 - Mizuho도 통일된 기준으로 AI가 평가한 이후, 최종 합격 판단은 면접관이 수행
- AI 면접은 지원자의 답변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전형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일관성 및 객관성을 높임
 -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던 방식을 보완해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채용 과정의 AI 활용과 확대에 맞춰 윤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 AI 면접 도입을 시작으로 AI 채용 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사 담당자가 심층 면접 및 정성적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필요
 - AI를 채용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AI와 협업하고 그 결과물도 비판적으로 판단·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
- AI 채용 확산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는 AI 채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함
 -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성별·출신·학교명 등의 편향성을 그대로 재현할 위험이 있어 채용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존재
 - 따라서 알고리즘의 공정성 사전 검증, 결과 모니터링 의무화, 지원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⁷⁾

■ MUFG AI 면접 전형 프로세스



자료 : 日本經濟新聞, 하나금융연구소 재구성

■ 일본 주요 금융·기업 AI 채용 방식 비교

기업	적용 단계	AI 채용 방식
MUFG	1차 면접	AI 면접
SMBC	집단 토론	AI 점수화
Mizuho	면접	24시 AI 면접관
미쓰비시상사	서류전형	AI 면접
스미토모상사	서류전형	AI 면접
마루베니	본 전형	AI + 대인 면접

자료 : 日本經濟新聞, 하나금융연구소 재구성

금리: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로 급등

민 현 하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며 상승했다. 韓 금리도 중동 리스크 영향과 차기 한은 총재 후보의 과거 매파적인 발언이 주목되며 상승했다. 한편, 3월 FOMC에서 관세와 중동 리스크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음이 강조됨에 따라 상반기 중 美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韓 시장금리는 美-이란 전쟁 영향에 의해 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WGBI 자금이 유입되며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금리, 중동 전쟁發 유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며 일제히 상승

- 美 금리는 美-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브렌트유 3월 중 43.1%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
 - 美 2/10년물 금리 추이(%) : 2.27일 3.48/4.04 → 3.26일 3.98/4.42(+60.1/47.3bp)
- 日 금리는 BOJ가 중동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에 유의하며 물가와 성장의 완만한 회복을 바탕으로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을 지속할 것을 시사해 상승
 - 日 10/20년물 금리 추이(%) : 2.27일 1.23/2.11 → 3.26일 2.27/3.12(+16.2/19.6bp)
- 英 금리는 BOE가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언급한 부분이 매파적으로 평가되며 급등(英 10년물 3월 중 +54.5bp)
 - ECB도 '26년 물가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조정하며 물가 상승을 우려


■ 韓 금리, 차기 한은 총재 후보의 과거 매파적 발언 주목,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상승

- 韓 금리는 정부의 수급 안정 의지(국고채 순상환 추진, 발행 물량 축소)에도 중동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며 상승
 - 韓 3/10년물 금리 추이(%) : 2.27일 3.04/3.45 → 3.26일 3.55/3.87(+51.1/41.9bp)
- 또한,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의 과거 매파적 발언이 주목을 받으며 상승 압력 부가
 - 과거 신 후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 사이클의 중요성 등을 주장
- 크레딧 스프레드는 1분기 말 계절적 특성에 따라 단기자금 유출이 커지면서 채권 수요가 약해지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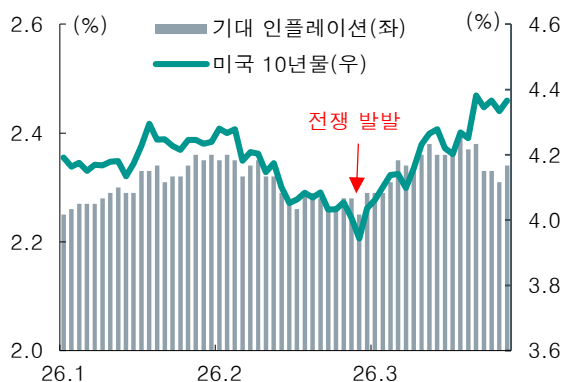
■ 3월 FOMC,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지 않으면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

- 3월 FOMC에서는 고용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확대와 관세 및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
- 특히, 금번 점도표에서 연내 동결 및 1회 인하 의견이 확대되며(4명→7명) 연준 內 물가 상승 경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음을 시사
 - 파월은 2월 근원 PCE를 3.0%로 예상하고 0.5~0.7%p는 관세 영향이라 판단하며 관세가 일회성 가격 상승 요인임에도 8~12개월간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
- 중동 전쟁 장기화 및 관세 등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美 연준의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韓 금리, 물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도 WGBI 편입으로 상승 압력이 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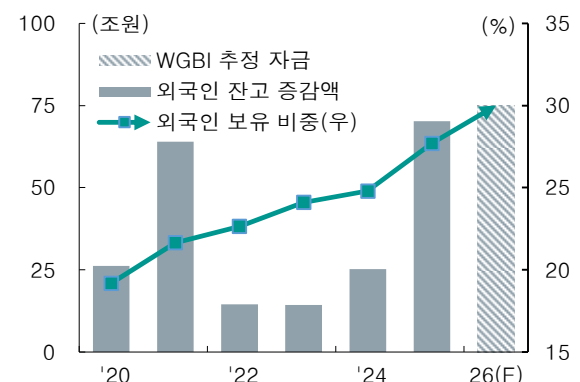
- 韓 시장금리는 정부의 수급 안정화 노력에도 중동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상방 압력을 받을 전망
 - 정부는 발행 물량 축소 및 초과 세수를 통한 국고채 순상환 등으로 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 다만, 4월부터 WGBI 편입으로 인한 대규모 외국인 채권 자금(약 70조원) 유입으로 채권 수요 확대가 확대되며 시장금리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WGBI 자금은 4월부터 11월까지 동일 비중으로 韓 국채시장에 편입될 예정
- 韓 금리는 4월 금통위 동결 가능성이 높음에도 시장금리 상하방 요인 공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 추경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20%~3.65%, 3.60%~3.95% 범위로 전망 

■ 美 10년물 금리 및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 Bloomberg, Fred

■ 외국인 잔고 증감액 및 보유 비중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인포맥스, 하나금융연구소

외환: 이란 전쟁으로 급등 및 변동성 확대

이 동 현 연구원

원/달러 환율은 이란 전쟁 발안 안전자산 선호 및 고유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美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에 급등했다. 달러화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세 후 휴전 협상 언급에 강세 폭이 축소되었으나 양국의 강경한 입장에 재차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반도체 수급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1,470~1,540원에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고유가 등에 급등

- 원/달러 환율은 美 이란 공습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美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급등
 - '26.3.23일 종가기준 1,517원으로 '09년 금융위기 기간 이후 최고가 마감
- 이후, 美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및 종전 협상 기대감에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협상 조건에 대한 이란의 강경한 태도로 1,500원대로 재진입
- 종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및 美 병력 투입 승인, 이란의 지속적인 걸프국 공격과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 장기화는 환율 하방을 제한
 - 특히, 주요 협상내용(핵포기, 미사일 제한 등)에 대한 이견은 협상 장기화 요인


■ [국제 환율] 美 달러화, 위험 회피 심리 및 고유가, 매파적 FOMC 등에 강세

- 美 달러화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매파적 FOMC(금리인하 지연 혹은 동결 가능성) 등으로 강세
 - 美 휘발유 가격은 2월 말 갤런당 2.9달러에서 3.25일 3.98달러로 급등
- 유로화는 유로존 주요국의 천연가스 공급 충격에 따른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 및 물가 전망 상향 조정, 달러 강세 등으로 약세
 - ECB의 고유가 발 인플레이션 상향 조정으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전망 제기
- 엔화는 중동 리스크로 인한 강달러 및 고유가 장기화 전망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으로 펀더멘탈 악화 리스크가 부각되며 약세
 - 단, 고점에서의 당국의 실개입 경계로 인해 160엔 상단 돌파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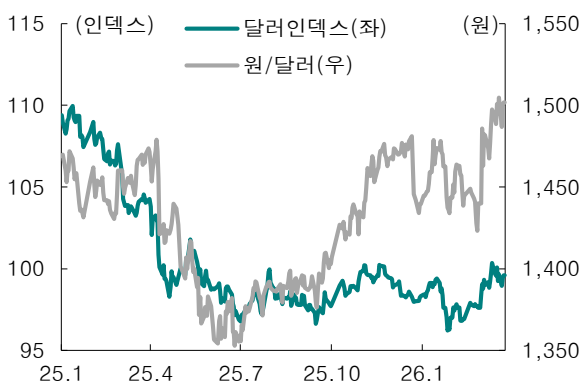
■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노출된 아시아 국가들

- 전쟁이 약 한 달간 장기화됨에 따라 중동지역 에너지 및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 확대되며 통화가치 동반 하락
 -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54%), 일본(50%), 대만(40%) 등 아시아 비산유국들은 유가상승 및 해상운송료 상승으로 무역수지 타격 가중
- 특히, 전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韓(17%)·日(17%)·臺(18%) 3국의 에너지 수급 및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해당 국가들의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글로벌 IT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기
 - 한국의 경우 헬륨, 브롬 등의 소재를 중동국가들(카타르, 이스라엘 등)에 의존하며 대만은 전력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LNG 수입의 1/3을 카타르에 의존

■ 원/달러 환율은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높은 레벨에서의 변동성 장세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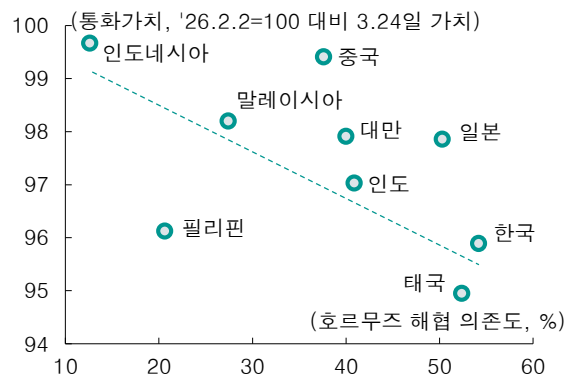
-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시아 통화와 동반 약세를 지속하며 휴전 협정 향방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특히, 최근 엔화와의 높은 동조성(전쟁 발발 후 0.71 기록)과 일본의 높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로 인한 엔화 약세 또한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에 기여
- 수급여건은 국내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동 리스크 지속으로 인한 위험 회피심리에 따른 외국인 국내증시 이탈 등으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1,500원대에서 유입되는 수출업체 네고물량 및 휴전 협상 언급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 일부 완화 등에 의해 추가적인 급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은 1,470~1,540원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및 아시아국 통화가치 변화



주 : 호르무즈해협 의존도란 에너지 수입 중 중동産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Nomura, Bloomberg

부동산: 양도세 유예 종료 및 세제 변화에 관망세 확산

이재원 수석연구원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에 진입한 주택시장은 세제 변화 예고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지방권과 5대광역시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종료를 확정하고, 제도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주택자 매물 증가와 매수자의 하락 기대로 당분간 관망세가 전망되며,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강화 기조가 추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거래시장 위축이 예상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종료 정책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종료 확정^[1]에 따른 수도권 매매 매물 증가로 전국 주택가격의 2월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전반적인 상승세는 유지
 -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MoM) : 0.26%(’25.12월) → 0.28%(’26.1월) → 0.23%(2월)
- 규제지역^[2]에서는 주택시장 회복을 주도했던 서울 도심권과 동남권, 경기 경부1권의 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월 대비 낮은 상승률을 기록
 - 2월 수도권 주택가격 변동률(%) : 도심권 0.70% (전월 대비 0.38%p ↓), 동남권 0.36% (0.79%p ↓), 경부1권 0.90% (0.17%p ↓)
- 지방광역시는 전반적인 상승세 둔화 속에 부산(0.12%), 울산(0.38%)은 상승세, 대구(-0.07%), 광주(-0.06%)는 하락세가 1월에 이어 지속
 - 5대광역시 주택가격 상승률(% MoM) : 0.09%(’25.12월) → 0.08%(’26.1월) → 0.06%(2월)

■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매매 매물로의 전환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

-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월 평균 2.2만 건으로 유지되었으나, 2월에는 1월 대비 약 27% 감소
 - 아파트 전·월세거래 신고 건수 : 2.5만 건(’25.12월) → 2.3만 건(’26.1월) → 1.6만 건(2월)
-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유예 조치 종료로 인해 전·월세 매물이 매매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6.2.12일)

[2] 10.15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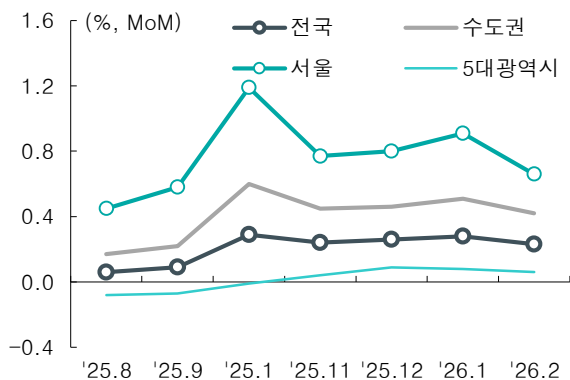
■ 세제 정책 변화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증가와 매수자의 추가하락 기대 속 관망세 전망

-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2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3.2일 공식적으로 종료
- '26.5.9일 계약분까지 중과 유예 조치가 적용되며, 이후 규제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를 산출
 - 기존 규제지역은 계약완료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
 - 토지거래허가까지 약 2주 시차 고려 시 4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중과 면제 혜택이 가능하며, 5.9일 이후 계약분에는 1세대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
- 당분간 시장은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도차익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및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

■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세 부담 증가 시 거래시장 위축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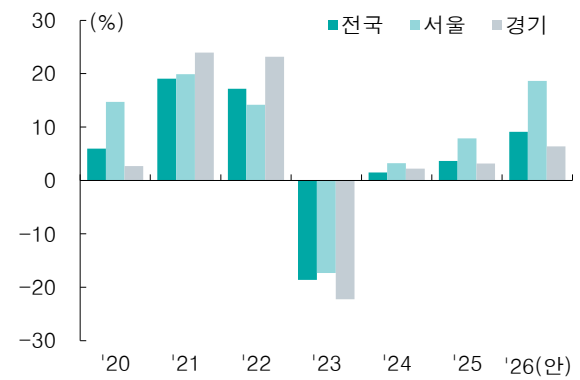
- 정부는 지난 3.17일 '25년 부동산의 개별 시세 변동만을 반영한 공시가격을 발표했으며, 전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최근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
 - 주요 지역 전년대비 변동률(%) : 전국 9.16%, 서울 18.67%, 경기 6.38%, 서울 외 지역 3.37%
- 공시가격은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복지수급체계, 개발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행정 및 복지제도에서 자산평가 척도로 활용되므로 부담 수준 결정 및 자격 부여에 영향
- 상승한 공시가격과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될 경우 매수인의 부동산 보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거래 의사결정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전반의 거래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자료 : 국토교통부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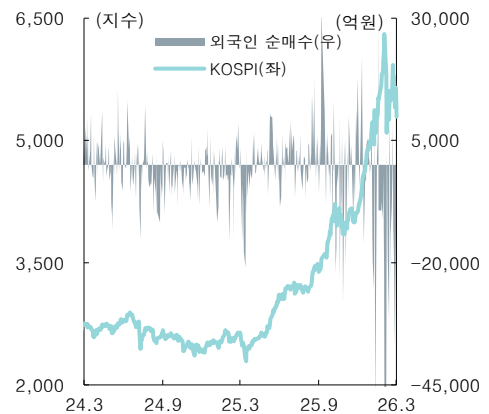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25월말	2.63	2.81	2.79	3.48	2.95	3.24
2월말	2.60	2.81	2.86	3.64	3.04	3.28
3월 20일	2.53	2.81	2.99	3.99	3.41	3.62
3월 23일	2.53	2.81	3.07	4.20	3.62	3.84
3월 24일	2.54	2.81	3.04	4.12	3.52	3.76
3월 25일	2.53	2.82	3.09	4.16	3.56	3.79
3월 26일	2.53	2.82	3.10	4.16	3.55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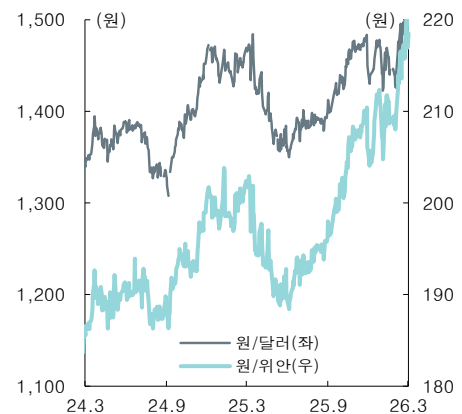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25월말	4,214.2	132,135	408	-4,886
2월말	6,244.1	549,393	1,166	-70,812
3월 20일	5,781.2	340,259	1,491	-12,455
3월 23일	5,405.8	272,432	1,126	-36,983
3월 24일	5,553.9	249,324	1,171	-19,793
3월 25일	5,642.2	246,421	763	-12,866
3월 26일	5,460.5	256,153	925	-29,501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4년말	1,472.5	934.1	201.4	1,522.7
'25월말	1,439.0	916.1	204.4	1,686.3
2월말	1,439.7	921.8	209.9	1,701.1
3월 20일	1,500.6	942.4	217.9	1,736.2
3월 23일	1,517.3	957.6	220.5	1,761.8
3월 24일	1,495.2	941.9	216.9	1,735.3
3월 25일	1,499.7	940.2	217.3	1,733.1
3월 26일	1,507.0	942.8	218.0	1,7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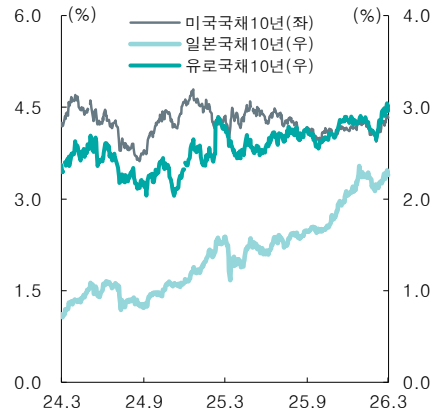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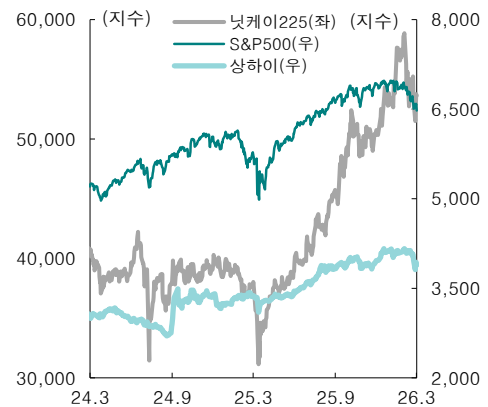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4년말	4.33	4.69	4.24	4.57	1.10	2.37
'25월말	3.64	4.01	3.47	4.17	2.07	2.86
2월말	3.64	3.73	3.37	3.94	2.12	2.64
3월 20일	3.64	3.69	3.79	4.25	2.28	2.96
3월 23일	3.64	3.69	3.90	4.38	2.28	3.04
3월 24일	3.64	3.69	3.85	4.34	2.31	3.01
3월 25일	3.64	3.69	3.89	4.36	2.27	3.03
3월 26일	3.64	3.69	3.89	4.33	2.26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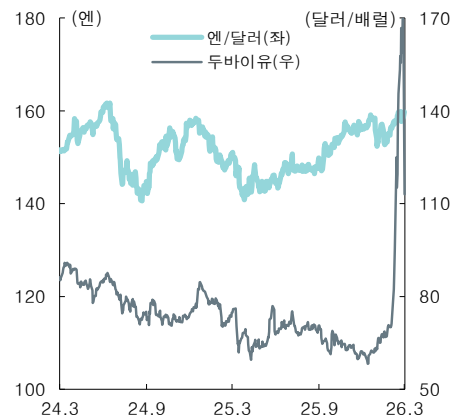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25월말	6,845.5	50,339.5	3,968.8	5,791.4
2월말	6,878.9	58,850.3	4,162.9	6,138.4
3월 20일	6,506.5	-	3,957.1	5,501.3
3월 23일	6,581.0	51,515.5	3,813.3	5,574.3
3월 24일	6,556.4	52,252.3	3,881.3	5,581.3
3월 25일	6,591.9	53,749.6	3,931.8	5,649.3
3월 26일	6,477.2	53,603.7	3,889.1	5,565.9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25월말	156.63	1.175	61.6	4,341.1
2월말	156.16	1.182	71.2	5,247.9
3월 20일	159.22	1.157	158.9	4,574.9
3월 23일	158.43	1.161	169.8	4,407.3
3월 24일	158.68	1.161	157.0	4,402.0
3월 25일	159.44	1.156	142.6	4,552.3
3월 26일	159.78	1.153	113.0	4,376.3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6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6년 3월 27일 인쇄

2026년 3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6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